실력을 쌓는 대신 예쁘게 보이자

(에스더 5:1~5)

1. 제삼 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2.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 규 끝을 만진지라
3.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4.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5.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실력을 쌓는 대신 예쁘게 보이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실력을 쌓는 대신 예쁘게 보이자'

전통적으로 결혼을 할 때에 신부 측 어머니께서 궁합을 봅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녀가 부부로 살게 될 경우에 인격적인 요소가 잘 맞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점쳐보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부부가 잘 살기 위한 궁합의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말해보자면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매력적으로 볼 것인가가 행복한 부부의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외모와 실력과 돈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배우 김태희 씨가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회자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목사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보았습니다. 얼굴이 예쁜 배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예쁠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을 졸업했다는 실력이 인정받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견인하는 대표적 가치인 외모와 실력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김태희 씨는 이 시대의 가치를 대표하는 상징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여배우 중에서도 특별히 김태희 씨의 이름이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훌륭한 외모는 큰 힘입니다. 이 말을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데렐라의 동화를 보아도 왕자가 신데렐라와의 깊은 교제를 통한 인격에 반한 것이 아닙니다. 신데렐라는 계모 밑에서 모진 고통을 참고 살면서도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왕자는 그러한 인격을 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외모에 반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외모를 보고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예쁘게 보인 것 하나 때문에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쁘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실력보다 낫습니다. 걷는 사람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위에 예쁜 사람이 있습니다. 예쁘면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 주변 사람들이 무엇이라도 주려고 안달이 납니다. 사실 예쁘기만 하면 실력을 갖출 필요조차 없습니다.

다만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예쁘게 보시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쁜 여자 친구를 위해서라면 빚을 내서라도 명품백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보시는 사람이 있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고 싶어 안달이 나실 정도로 우리가 예쁘게 보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제가 백지수표를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신데렐라나 에스더는 외모가 예쁘게 보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예쁘게 보일까요? 성질 급한 분들을 위해 미리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앞에서 항상 샌드위치 상태입니다. 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단순히 돈 문제만을 앞에 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돈 문제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사이에서 내 마음이 샌드위치처럼 끼어있습니다. 가족 문제, 결혼, 승진 사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항상 내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샌드위치로 만듭니다. 이 샌드위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던 것처럼 나를 예쁘게 보십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실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실에 들어갔다가는 근위병들에 의해서 잡혀 죽습니다. 나중에 하만이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이 에스더를 보고 오뉴월 봄볕에 눈 녹듯이 녹아내립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왔기 때문에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았더라면 에스더는 꼼짝없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타난 에스더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물으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말을 합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이 일개 여자에게 완전히 마음이 빠졌습니다. 에스더의 외모가 출중하기도 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

셨던 것입니다.
부부의 궁합은 하나님께서 부부의 마음을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볼 때와 같이 만드시는 것으로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행복한 부부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름답게 보고, 아내가 남편을 훌륭하게 바라볼 때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대를 관통해서 통할 수 있는 미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기에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유대민족 말살위기에서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고 반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내용과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은 에스더를 향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늘에 달이 뜨면 경포호수에도 비치듯이, 에스더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비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선민 개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만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선민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민 됨의 말살위기가 생겨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극복하시기 위해서 민족말살 위기에 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듯이 선민 개개인을 보시기 위하여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민족말살 위기의 절박한 상황과 살아계신 하나님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어 끼어있었습니다. 선민들은 이 샌드위치 상황에서 제1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를 통해서 동족을 구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유대민족을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에스더는 유대민족의 말살위기와 살아계신 하나님 사이에서 샌드위치로 끼었을 때에 제1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 사람은 샌드위치 상황에서 제1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또한 제1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선민입니다. 제1계명은 성경공부나 성경강해를 할 때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샌드위치 상황에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위해서 에스더는 삼일 금식을 합니다. 금식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말로 꺼낸 각오가 마음에 각인되었던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은 실제로 마음이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도 제1계명을 지키기 위함이지 민족의 구원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개가 하만 앞에서 제1계명을 지키기 위해 경배를 거부했고, 그것을 계기로 민족은 위기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민족말살의 위기와 하나님 사이에서 위기를 극복하려 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1계명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샌드위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급한 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살아계셔서 함께 계시므로 내 마음은 돈 문제와 하나님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게 됩니다. 이때에 제1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쁘게 보시도록 하는 일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제1계명의 본뜻은 마음에 하나님 외에는 기쁨과 만족을 줄 것이라고 믿는 대상이 없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으며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제1계명은 이렇게 내게 기쁨과 만족이 되는 대상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외에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돈 문제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제1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걱정 근심 불안 불평이 생겼다면 이것은 돈을 신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는 것은 마음에서 돈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고 돈에 대해서 마음이 죽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가난뱅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에 대해서 죽는다고 해서 내게 기쁨과 만족도 없이 슬퍼하고 불평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나의 기쁨과 만족을 삼는 것이 제1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가 마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왕에게 나가서 금규를 허락받지 못해서 죽을지라도 상관없다는 각오였습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돈 문제가 급하여 길거리에 나앉게 되더라도 그 상태가 나를 불행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걱정한다는 것은 곧 돈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는데 나도 하나님만 계시면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 제1계명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돈 문제에 대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돈을 없애는 것이고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여기되, 나는 사업의 흥망으로 인해 기뻐하지도 않을 것이고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쁨과 슬픔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기쁜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슬픈 것입니다. 이렇게 각오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

을 움직이셔서 에스더를 볼 때에 크게 기뻐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족말살의 위기가 에스더의 마음을 빼앗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급박하고 중차대한 문제로부터 간단히 내 마음이 탈출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에스더는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을 할 때에 자의로 이 세상의 소원을 가지고 이것저것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 강청하고자 금식을 합니다. 이것을 안 이루어주면 밥도 안 먹겠다고 생떼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의 본래 취지는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죽듯이 죽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강력하게 빼앗는 것에 대해 발을 빼기 위해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 금식은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유효합니다. 다만 이 금식의 의미를 완전히 충족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곧 샌드위치 상황에서 내 마음을 빼앗으려는 강력한 대상들에 대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문제에 관여할 수 있고 문제의 흥망 여부에 따라 기뻐하거나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겠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생활화의 원칙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샌드위치 상황이 일어납니다. 건강 문제와 하나님과 샌드위치가 되고, 자녀 문제와 하나님과 샌드위치가 되고, 사업과 하나님과 샌드위치가 되고, 나라와 하나님과 샌드위치가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 마음은 에스더처럼 세상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모르드개가 하만 앞에서 제1계명을 지켰듯이 에스더는 마음을 빼앗는 민족말살의 위기 앞에서 제1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스더를 예쁘게 보셨던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예쁘게 보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만 하면 실력과 능력과 필요한 자원의 모든 것이 공급됩니다. 그러므로 예쁘고 볼 일입니다. 육체의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가 샌드위치 된 모든 상황에서 십자가에서 마음이 죽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보내는 일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내 기쁨과 만족과는 상관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예쁘게 보신 것처럼 우리들의 외모가 박색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뻐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부 간에도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서로를 예쁘게 여기도록 마음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이게 가짜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김태희 씨가 예쁘게 보이는 것도 진짜 예뻐서 예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외모의 기준을 정하는 마귀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쁘게 보이는 것은 이 세상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정면 돌파에

서 모든 사안의 정면은 하나님의 특권이듯이 예쁜 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못생겼어도 실력이 없어도 상관없이 샌드위치 상황에서 제1계명을 지키므로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고 볼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끝없이 다가오는 모든 샌드위치 상황에 대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만 예쁘게 보이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